광주시민 폭우 피해 심각한데…시의회는 한심한 '감투 싸움'

예결위원장 선임 갈등에 본회의 1시간 지연…예결위 9명 겨우 선출

"폭우 피해 현장 수습 등 민생 챙겨야할 의원들 밥그릇 싸움" 비판

광주지역에 역대급 폭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광주시의원들은 볼썽 사나운 '자리 다툼'을 벌여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피해 현장을 둘러보기 위해 양해를 구하고 본회의에 불참하는 상황에도 시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을 위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갈등을 빚으면서 본회의 조차 1시간이나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시민을 대표한다는 시의원들이 극한 호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뒷전인 채,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포석한 '자리 싸움'만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8일 제3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 선임을 위한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예결위원 선임 문제를 놓고 시의원들 간에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이례적으로 1시간 늦게 지각 개의했다.

본회의에는 참관인까지 있었지만, 별다른 안내도 없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광주시 간부들도 폭우 피해 현장 수습을 위해 피해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지만, 민생을 최우선시해야 할 시의회 의원들은 그 시간 감투 다툼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었던 셈이다.

광주시의 주요 예산·결산안을 최종 심사·조정하는 특별기구인 예결특위는 4개 상임위에서 각 2명씩, 의장이 1명을 추천해 모두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지난 회기에 마무리했어야 했지만, 의원들의 요구가 충돌하면서 추천 단계부터 잡음이 일었다.

민주당 서임석 시의원이 1년 전 시의회 원 구성 당시 민주당 의원들 간의 합의를 통해 차기 예결위원장으로 내정됐으나, 소속 상임위에서 예결위원으로 추천받지 못해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서 의원은 예결위원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신수정 의장은 "소수 정당을 배려해 무소속 심창욱 의원을 의장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말해 논쟁이 오갔다. 1년 전 민주당 의원들 간 합의가 깨지면서 갈등이 빚어진 것이다.

이에 일부 의원들은 "신수정 의장이 언제부터 소수 정당 의원을 챙겼는지 모르겠다"면서 "시의회에서 유일하게 1명 있는 국민의힘 의원을 챙긴다면 모를까, 음주운전 등으로 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을 배려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신 의장이 차기 지방선거에서 북구청장 출마를 위해 북구 선거구인 심창욱 의원을 챙긴 것 아니겠느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명 선임 안건은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기명 투표 끝에 찬성 14명, 반대 5명, 기권 3명으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예결위원으로는 이귀순, 채은지, 박미정, 정다은, 김용임, 강수훈, 김나윤, 정무창, 심창욱 등 9명 의원이 선임됐다. 하지만 일부 의원등은 아직도 불만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여 추후 진통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애초 일정보다 1시간 늦게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선임안 2건,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윤리특별위원 선임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돼 서임석 의원이 위원장, 이귀순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본회의 직후 선임됐다.

이날 시의원들 간 자리 다툼에 1시간이나 본회의가 늦어진 상황 속에도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시정질문을 통해 제기된 현안에 대해 시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남은 임기 동안 시민 삶의 현장에서 답을 찾는 민생 중심의 의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진로진학 박람회 18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광주진로진학박람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 부스 앞에서 상담을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이번 박람회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학 정보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월·G-페스타…광주 맛과 멋 관광객 눈길 사로잡다

6월 559만명 방문·10.7% 증가…증가율 전국 1위

'2025 광주방문의 해'를 선포한 광주시에 지난 5월과 6월 지난해 대비 방문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광주를 방문한 외지인 관광객은 559만여명으로, 전년 동월 500만여명 보다 10.7%(54만여명) 증가했다.

이는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5·18전야제 등 풍성한 오월 기념행사가 마련됐던 지난 5월에도 외지인 관광객은 677만여명으로 전년 동월(569만여명) 대비 19%(108만여명) 급증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도 광주의 매력을 선보일 축제와 이벤트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9~10월 중에는 G-페스타 가을 시즌이 열린다. 10월에는 호남권 공동으로 '호남 관광문화 주간'이 펼쳐진다. 광주·전남·전북 3개 시도가 참여해 대표 축제·광역 관광상품·공동 홍보관 등을 운영하며,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광역 협력 모델이 구현될 예정이다.

같은 기간에는 '맛의 도시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광주 미식주간'도 운영된다. 할인 이벤트, 미식 플리마켓, 테마형 미식투어 상품 등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식 콘텐츠를 도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또 광주2025세계양궁선수권대회, 2025디자인비엔날레 등 국제행사도 '광주 방문의 해'와 연계 체류형 관광을 유도하고 방문객이 광주의 맛과 멋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중점 추진 중인 '2025 광주방문의 해'가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는 것으로 자평했다.

철도·외식·관광·숙박업계와 광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기반을 다졌으며 외지인 관광객 증가 등 실질적인 효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11개의 축제와 행사를 연계한 'G-페스타 봄 시즌'을 운영해 인기를 끌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5·18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민주주의의 가치와 광주의 역사성을 되새기는 축제로 구성된 오월광주 축제가 총 5만여 명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 세대를 아우르는 민주주의 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여름 대표 축제인 스트릿컬쳐페스타는 거리문화의 진수를 선보이며 연령과 국적을 불문하고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약 1만5000명이 참여했다.

광주시가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여행상품과 편의 서비스도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문학 테마를 접목한 '소년의 길'과 스포츠 관광 수요에 맞춘 '야구광트립', 광주와 전남을 잇는 협력 콘텐츠인 '선 넘는 여행' 등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으로 관광객의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에서다.

철도 연계 관광상품 '레일텔'과 '내일로', 숙박할인을 제공하는 '숙박페스타'는 체류형 여행 수요를 이끌어냈고 관광지 입장료 할인, 기념품 프로모션 등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택시요금 조정' 시민 의견 듣는다

내일 시민공청회 개최

광주시가 택시요금 시민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대강당에서 택시요금 현실화를 주제로 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다.

택시업계와 시민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2025년 택시요금 조정방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번 공청회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주재해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한다.

광주시·시의회 관계자, 택시종사자,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택시업계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요금 현실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전남도, 건설업 운영자금 마련 기업융자 지원

기업당 최대 3억원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건설업 전용 운영자금(200억원)을 마련했다.

건설경기가 위축된데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전남도가 올해 처음 도입한 건설업 운영자금은 업계의 오랜 요청이기도 하다.

전남지역 기업들의 경우 기업당 최대 3억원, 연 3.0% 금리로 최대 2년 융자가 가능하며 일반 운영자금과는 별도로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정책자금 우대 기업 융자한도를 기존 최대 20억 원에서 23억원으로 올려 보다 넓은 자금 활용이 가능토록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